

간호학 전공 여대생이 인지한 분만의 의미에 대한 연구

여 정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분만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삶의 한 과정임과 동시에 생의 주기별 발달단계 중 출산기 과업을 완수하는 시기로 분만을 통해 인격적인 성숙을 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만에 대한 경험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김현경, 1994; 송미승, 1992) 만약 부정적인 경험이 강하다면 어머니로의 역할 적응에 문제가 발생하며,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영아의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에 지속적인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Laufer, 1990). 또한 분만시 가졌던 경험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여성의 여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Simkin, 1991).

이런 점에서 볼 때 산부와 가족에게 최상의 분만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분만관리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연구자들은 분만경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분만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김현경, 1994; 송미승, 1992) 를 보면 대부분이 분만경험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남을 기술하고 있으며, 분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연구(Areskog,

Uddenberg와 Kjessler, 1983; Cartwright, 1977; Doering과 Entwisle, 1975; Green, Coupland와 Kitzinger, 1990; Mackey, 1995; Simkin, 1991; Slade, MacPherson, Hume과 Maresh, 1993; Waldenstrom, Borg, Skold와 Wall, 1996)에서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중 분만당시에 나타나는 요인도 많은 반면 분만이전에 가졌던 불안감, 분만이전에 가졌던 분만통증에 대한 부정적 지각, 분만이전의 분만통증에 대한 기대 등 미혼시 분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분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분만이전에 분만에 대한 생각이나 의미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분만경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중재요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만경험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거의 모두 초산모나 경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미혼여성의 분만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미혼여성의 분만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 전공 여대생들의 분만에 대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한 생각, 의미를 규명하여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유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주된 연구문제는 '여대생들이 인식하는 분만의 의미는 어떠한가?' 이다.

II. 문헌 고찰

분만경험은 분만과 관련된 심리적 태도, 지각, 반응으로 정의한다(Walker, 1992). 그러나 모든 여성들이 분만이라는 현상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분만을 경험한 어떤 여성은 자식의 탄생에 기뻐하며 행복해 하지만 또 다른 이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표현하여 여러 가지 간호중재를 요구하는 여성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행동과 반응은 상황적 관계에 대한 지각에 기초되는데, 즉 물체, 사람,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안숙희와 박영숙, 1992). 따라서 대부분의 분만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비구조화된 질문이나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현상을 이해하거나 기술하여 연구대상자의 견해에서 실제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만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김현경, 1994)에서 보면 분만전후의 경험으로 구분하여 분만 전 경험의 대부분은 통증에 대한 고통을 표현하고, 분만 후에는 '홀가분함' '감사함' '새 생명에 대한 경외' '생의 의미 확인' '어머니됨' 등을 도출하였으며, 송미승(1992)은 '아팠다' '해냈다' '엄마가 되었다' '잘 모르겠다'의 범주를 도출하여 분만이라는 현상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정희(1999A)의 경산모의 분만통증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보면 거의 분만경험의 질적연구에서 나타난 주제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분만통증이 분만경험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분만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보다는 분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있었다. Marut와 Mercer(1979)는 제왕절개한 20명의 초산모들과 질분만한 30명의 초산모들의 분만에 대한 지각을 비교하였는데 질분만한 대상자 중 반 이상에서 자신의 분만이 빨리 끝났다고 서술했고 진통이 힘들고 괴롭고 두렵고 끔찍한 것으로 표현한 사람부터 기적적이고 위대하고 환상적이라고 긍정적으로 지각한 사람도 있었다.

Waldenstrom 등(1996)에 따르면 분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만시 남편이나 다른 가족·친구에 의한 지지, 조산사나 간호사의 지지와 간호, 분만통증,

분만통증의 기간, 이전의 분만경험에 대한 개인감정 등을 들고 있으며, Green 등(1990)은 통증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 내과적 중재, 분만에 대한 기대, 출산력 등이 분만경험에 관여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Field(1974)는 산전교육, 정서적 안정, 출산력, 태아크기, 분만 중 제공되는 정서적지지, 개인의 과거경험 등이 분만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중 분만이전이나 임신이전의 요인이 분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낸 연구도 있었다. Areskog 등(1983)은 분만에 대한 산전 공포감이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간의 분만경험의 다른 점을 파악한 결과 산전 공포감을 가진 여성은 분만통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지각하여 분만경험이 부정적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여성은 분만에 대해 두드러지게 긍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산전공포감이 분만경험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Nettelblatt, Fagerstrom과 Uddenberg (1976)은 심한 분만통증을 나타낸 초산모는 청년기때 분만통증을 미리 예상한 것이 분만 때까지 지속된 것이라 보고하였고, Melzack(1984)에 따르면 임부가 분만과 통증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한다면 분만 후 실망이나 죄의식, 실패감이 줄어들며, 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통증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만이전에 가지는 분만에 관한 견해가 실제 분만시 분만통증에 더 나아가 분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분만의 경험이 없는 미혼여성에 대한 분만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우에 분만경험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임신이나 분만의 경험이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분만의 경험이 없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여대생이 가지고 있는 분만에 대한 의미, 생각, 느낌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간의 경험과 의미를 찾아내는 현상학적 방법 중 Giorgi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모 대학교 간호학과 1, 2학

년 학생으로 선정하였으며, 학년을 제한한 이유는 전공 과목 중 모성간호학을 학습하기 이전의 분만의 의미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호학과 학생이라는 특성으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간호학과 2학년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으나 분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간호학과 1, 2학년 중 연구에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임의 선정하였으며, 분만과 관련된 의미의 새로운 범주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총 수는 10명으로 연령은 21세-23세 이었으며, 분만과 유사한 경험이 없는 미혼이었고, 성교육은 초, 중, 고 과정에서 한 두 차례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내용은 중 고등학교 생물시간에 배운 정도의 수준이었고 때로는 낙태나 성폭력 예방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이었으며, 연구자는 방과후에 빈 강의실(20명 수용의 작은 공간으로 난방 시설이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들과 직접 면담을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학기말을 선택하였으며, 면담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솔직한 느낌을 끌어내기 위해 학교생활에 대한 가벼운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였다. 면담시 대상자의 표현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동의 하에 녹음하였으며, 면담시간은 대상자의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상자가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설명은 되도록 삼갔으며, 질문에 대하여 면담내용이 반복적으로 이야기 될 때를 포화상태로 보았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30분정도 였으며,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10명 중 3명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재면담을 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에 맞는 의미를 끌어내기 위한 주된 질문 내용은 '분만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매체를 통해 분만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분만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등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Giorgi(1970)가 제시한 방법을 근거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와의 면담 후 녹음한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그대로 기술하고 주의깊게 읽었다.
- 2) 기술된 내용에서 분만과 관련된 의미있는 절이나 문장을 찾아내고 다시 노트에 옮겨적어 비슷한 진술내용을 통합하여 147개의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 3) 원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추출된 의미있는 자료와 원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각 진술에서 공통의 속성을 찾아 비슷한 주제로 유목화시켰다.
- 4) 추출된 주제를 다시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의미가 일치하는지 또는 누락된 자료는 없는지를 확인하였고, 그 후 주제별로 비슷한 내용끼리 모아 중심의미를 도출하여 각 대상자에서 나온 현상의 의미를 구체화시켰다.
- 5) 범주화된 자료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성간호학 전공 교수 1인에게 검증받았으며,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은 여대생 2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자신의 생각은 아니지만 공감하는지를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0명의 여대생들이 기술한 분만에 대한 자료에서 나타난 의미있는 진술은 147개 였고, 17개의 주제로 유목화 되었으며 8개의 중심의미로 표현되었다(표 1).

중심의미: 고통

의미있는 진술에서 확인 할 수 있었던듯이 여대생들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TV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픔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분만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자연분만이 좋을 것 같은데 고통이 너무 심할 것 같다' '분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한 명만 낳겠다' '소리지르는 장면이 생각난다' 'TV에서 너무 아프게 나오니까 아기가 낳기 싫다' '너무 아픈 것 같으니까 혼자 살다가 아기는 낳기 싫다' 등으로 아픔으로 인해 분만하기 싫음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분만을 통증이라는 생리적인 지각을 넘어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받아들임을 나타낸 것으로 중심의미를 '고통'으로 도출하였고 검증자와 학생 검증자 모두 이를 수

용하였다.

아픔은 분만을 경험한 사람 대부분이 느끼는 것으로 자궁근육수축이 시작됨에 따라 만출이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한다. 즉 분만을 경험한 초산모(김현경, 1994; 송미승, 1992; 정은순과 여정희, 1998)와 경산모(여정희, 1999A) 경우 통증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두 아픔을 경험하였다. Davenport-Slack 와 Boylan(1974)는 75명 출산여성의 97%가 자기가 겪었던 통증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보고하였고, Areskog 등(1983)도 출산여성의 대부분이 진통의 절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간호학생도 분만과정을 관찰한 후 그 경험에 대한 기술에서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불쌍하고 안쓰럽다라는 표현을 하여 미혼여성이지만 분만시 아픔을 경험하여(고명숙, 1998)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만을 경험한 산모와 경험하지 않은 미혼여성 모두 분만을 '고통'으로 표현하여 둘 간의 차이는 없었다.

특히 미혼인 여성이 분만을 고통으로 표현함은 분만시 통증에 더 민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심한 아픔으로 인식함으로써 분만경험이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분만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분만통

증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이 필요하며, 특히 TV를 비롯한 대중매체에서 잘못 묘사되는 분만장면에 대한 변화나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심의미: 수치감과 혐오감

여대생들은 분만장면에서 신체적인 노출이 너무 심하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 민망하며 혐오스러움을 표현하여 이를 수치감과 혐오감으로 도출하였다. 이들의 의미있는 진술문을 보면 '분만장면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이해가 안된다' 'TV에서 가족들이랑 보면 민망하더라' '성교육시간에 비디오로 아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쇼킹했다' '수중분만할 때 아기가 나오면서 피가 물속으로 나와 핏물이 될 때에는 끔찍하더라' 등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명숙(1998)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간호학생들은 분만장면을 관찰하고 회음절개, 쏟아지는 피와 양수, 제대와 태반등으로 충격을 받았고 부끄럽고 거부감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초산모의 경우에는 수치감과 혐오감을 없었다(김현경, 1994; 송미승, 1992).

대부분의 여성들은 임신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표 1〉 분만의 의미에 대한 중심의미와 주제

중심의미	주제	의미있는 진술
고통	평장한 아픔이다	'뺨이 떨어졌다가 붙는 것 같은 아픔이라고 하더라' '아픈다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다' 'TV에서 보면 너무 아파보이더라' '아파서 한명만 낳겠다'
	낳고싶지 않다	'아기는 갖고 싶는데 결혼은 안하고 싶다' '분만을 보는 순간 낳고 싶지 않았다' '너무 무서워서 입양해도 괜찮을 것 같다'
수치감과 혐오감	부끄럽다	'분만장면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이해가 안된다' 'TV에서 가족들이랑 보면 민망하더라'
	혐오스럽다	'아기가 나오는 장면이 동물갈더라' '그렇게 해서 내가 나왔더니 믿어지지 않는다'
부담감	자유롭지 못하다	'억매이는 느낌이 든다' '항상 데리고 다녀야 한다' '저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는데 아기를 키운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닌데 힘들겠다' '앞으로 아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걱정이 된다' '낳는 것은 한 순간이니까 괜찮는데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걱정이다'
	책임감이 생긴다	
당연함	자식을 얻기 위한 일이다	'아기를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아기를 원하기 때문에 꼭 할 것이다' '여자라면'
	여자라면 당연한 것이다	한번쯤은 겪어야할 것이다' '여자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나도 저렇게 낳겠구나'
비현실감	실감이 안난다	'이 아기가 진짜 내 배속에서 나왔나 웬지 거리감이 있을 것 같다' '이상할 것 같다. 정말 이 아기가 나의 아기가 맞나'
행복감	기쁘다	'분만후 고통을 잊고 아기를 보면서 웃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행복하다	'지저분해도 안아줄 것 같다' '기쁠 것이다' '아기를 보면 눈물이 날 것 같다'
	신기하다	'조그마한 질에서 저렇게 큰 아기가 나오다니 정말 신기하다' '저렇게 나오는구나'
불안감	불안하다	'처음의 통증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혼자 있다가 아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기가 정상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기와 내가 혹시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을까' '안전하게 낳을 수 있을까'
성숙함	부모를 이해한다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자식을 낳아줘야 엄마 심정을 안다' '엄마가 했던 만큼 나도 아기를 잘 키우겠다'
	대단함을 느낀다	'내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 나를 더 높게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놀라게 되고 그 때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만약 계획된 임신이라면 기뻐하게 되고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인정하며 자신의 분신인 태아를 느끼면서 태아와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그들은 분만시 안전하고 정상적인 아기를 분만하기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미혼여성이면 이런 임신의 적응과정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곁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면만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혼여성의 수치감과 혐오감에 대한 관리로서 분만과정에 대한 비디오 시청과 분만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며, 그 외에도 분만당시 산부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등 인간적인 대우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의미: 부담감

부담감은 자식을 낳음으로써 자유롭지 못하고, 키워야 하는 의무감에 대해 힘들음을 표현하여 도출하였다. 이에 속하는 주제는 '자유롭지 못하다' '책임감이 생긴다'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현경(1994)의 초산모 출산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분만 후에 『걱정됨』을 표현한 것과 같은 경험이었다. 이들은 '아기를 보니까 걱정이 되요. 인제 앞으로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사회생활도 해야 하는데 여자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아기를 같이 키운다는게 힘들잖아요' 등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명숙(1998)의 연구에서는 '부담감'의 주제는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보면 분만경험이 있는 없는 간에 어머니로서 분만의 결과인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 자신의 미성숙함과 불분명한 경제적 능력과 미래의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식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즉 여성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아기의 양육에 신경을 써야 됨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개인적으로는 결혼 전후 분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요인 등을 고려하여 임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으로는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는 현대사회인 만큼 아기 양육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정책 차원에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중심의미: 당연함

의미있는 진술에서 보면 '많이 아파도 아기를 갖고 싶

은 생각이 크니까' '엄마도 그랬듯이 자기의 피를 물려받은 자식을 한 명 낳고 싶다' '나를 낳은 사람을 낳고 싶다' '아파도 결혼하면 낳아야 하니까' 등으로 아기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하며, 여자라면 분만은 당연한 것이고 엄마가 나를 낳았듯이 나도 아기를 낳아야 하는 운명을 가진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검증자와 논의하여 '당연함'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만을 경험한 초산모나 경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현경, 1994; 여정희, 1999A; 여정희, 1999B)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분만경험이 있는 없는 간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아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산모들은 분만 통증을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으로 당연히 받아들였고 부모들이 자식을 낳았듯이 자신도 낳아야 하는 운명임을 인식하였다(여정희, 1999A). 또한 김현경(1994)의 연구에서도 분만은 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여정희(1999B)는 분만통증과 간호요구에 관한 인식 분석에서 운명수용형이 도출되었는데 이들은 분만통증을 숙명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고, 자식을 얻기 위한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여 분만통증의 인위적인 조절이나 자가 조절을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분만통증을 어떻게 자신이 잘 조절하느냐(Waldenstrom 등, 1996)와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Mackey, 1995)가 긍정적인 분만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Green 등(1990)과 Simkin(1991)은 통증을 자기 스스로 조절한 산부일 수록 분만경험이 더 만족스럽다고 보고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분만통증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과 자세도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얻는데 필요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분만을 자식을 얻기 위해 또는 여자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분만통증을 무조건 참는 것은 분만경험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됨으로 분만과정에 대한 생리적인 기전과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심의미: 비현실감

여대생들은 분만의 결과인 아기에 대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표현하여 이를 '비현실감'으로 도출하였다. 의미 있는 진술로는 '금방은 안아주지 못할 것 같다. 웬지 이상할 것 같다' '이 아기가 내 배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것 같다' 등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명숙, 1998)는 없었지만 초산모의 경우에서는 볼 수 있었다. 김현경(1994)은 분만에 대한 특별한 느낌이 없거나 얼떨떨하고 실감이 안난다고 표현한 대상자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송미승(1992)도 초산모의 절분만 경험 중 실감이 안난다는 속성으로 도출하였고, 초산모의 분만통증에 관한 연구에서도 '아기를 봐도 너무 지쳐서 실감이 안난다' '아기를 보니 너무 아파서 그런지 아무 느낌도 없다' 등으로 진술하여 비현실감을 표현하였다(정은순과 여정희, 1998).

따라서 초산모 경우에서도 비현실감이 나타나듯이 아직 분만을 경험하지 못한 미혼 여성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분만에 대한 비현실감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현실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임신을 계획하고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한 어머니됨의 준비가 필요하며 어머니 역할과 모아에착에 대한 지식습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중심의미: 행복감

여대생들은 분만 후 아기를 보면 기쁘고 신기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대한 중심의미의 도출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행복감'으로 명명하는데 검증자와 학생 검증자 모두 동의하였다.

여대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보면 어떻게 닳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귀엽고 예뻐 것 같다' '아기를 보면 신기할 것 같다' 등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만관찰경험에 관한 연구(고명숙, 1998)에서 뿐만 아니라 초산모의 분만 경험을 연구한 김현경(1994)과 송미승(1992)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었다. 고명숙(1998)은 분만과 생명탄생의 과정에서 신비함을 느낀다는 주제를 도출하였고, 송미승(1992)는 『해냈다』는 범주에서 속성으로 '신기하다' '좋다' 을 도출하였으며 의미있는 자료로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애기가 하는 점이 신기하기만 해요' '말로 할 수 없이 좋아요' '낳을 때는 고통 받았지만 마음이 놓이고 좋더라고요' 등으로 표현하였다. 김현경(1994)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한 경외감을 도출하여 자신의 아이가 생겼음을 인식하고 기뻐하였음을 표현하였다.

분만직후 산모들은 말로서만 듣던 탄생의 신비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신비로움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리

고 미혼여성의 경우도 분만을 한 경험은 없으나 비디오를 통해 남들이 분만하는 것을 보거나 상상만으로 행복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행복감은 분만 후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의 하나로 여생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태가 되며 보다 더 나은 모아간에 애착반응이 나타나리라 기대할 수 있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중심의미: 불안감

의미있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대생들은 분만시 통증에 대해서 걱정하였고, 아기의 정상 여부와 자신과 태아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이를 '불안감'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뿐만 아니라 초산모, 경산모에서도 볼 수 있었다. 간호학생들은 분만을 관찰한 후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두려움을 표현하였고(고명숙, 1998), 경산모들은 이전의 분만경험으로 인해 아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었으며(여정희, 1999A), 초산모들은 분만 전에 예기된 고통과 현재 겪는 고통, 분만 진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아울러 건강한 아이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하였다(김현경, 1994).

본 연구 대상자들은 분만의 경험은 없지만 주위에서 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분만은 상당히 힘들고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여 미리부터 불안해 하였다. 이러한 불안은 통증을 가중시키는 요인(정은순, 1976)으로 자궁수축과 경관 확장을 저해하여 분만을 지연시키며((Pritchard와 Macdonald, 1996), 모체나 태아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임신오조증, 난산, 습관성 유산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숙과 허영, 1986; Burstein, Kinch 와 Stern, 1974; Gorsuch 와 Key, 1974).

따라서 가임기 여성이라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불안감에 대한 관리는 분만과 태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족이나 의료인들의 심리적 지지가 아울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의미: 성숙함

여대생들은 분만통증을 겪고 아기를 낳은 것에 대해 본인의 능력이 대단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존감이 상승하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됨을 표현하였고, 자신이 자식을 낳음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식에게 애

착을 가지게됨을 진술하였다. 이를 '성숙함'으로 도출하였다. 이는 고명숙(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사랑과 감사 및 위대함'을 동시에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분만경험이 없는 미혼여성이지만 분만과정의 결과에 대해 만족을 얻었으며 자신의 대단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고통을 통해 인간은 신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고 고통을 통해 내적 인격을 정화시키며 품위있게 가꾸어 간다고 설명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Luehrman, 1977). 그리고 분만통증이 긍정적인 분만경험에 큰 영향을 미침을 주장하며 진통제의 투여가 분만경험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Waldenstrom과 Nilsson(1994)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즉 분만통증의 긍정적인 면은 경험한 통증이 아니라 분만통증을 산부 스스로 조절하려는 의지와 어려움의 극복에서 오는 만족감에 있다고 본다(Waldenstrom 등, 1996).

따라서 의료인들은 통증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감각적으로 느끼는 고통 이외에도 생명의 의미, 자식 사랑, 부모의 이해, 자신감, 자존감 등 많은 긍정적인 의미를 느낄 수 있음을 인식하여 통증 관리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여대생들의 분만에 대한 의미를 현상학적인 접근으로 규명하여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유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1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경험으로부터 17개의 주제와 8개의 중심의미를 도출하였으며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여대생들은 분만통증으로 인하여 분만을 아픔으로 여기고, 이로 인해 분만에 대한 거부감까지 표현하며, 통증과 비정상아의 분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자식의 양육에 대해 부담감을 가졌다. 그리고 적나라한 분만장면에 대해 민망함과 혐오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분만통증을 여자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분만통증으로 인해 얻어진 아기에 대해 행복감을 표현하지만 아기를 수용하지 못하는 비현실감도 나타났다. 그러나 분만통증을 겪으면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에서 나타난 중심의미는 '고통' '수치감과

혐오감' '부담감' '당연함' '비현실감' '행복감' '불안감' '성숙함' 등으로 분만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표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만을 경험한 산모와 다를 바 없었으나 '수치감과 혐오감'은 미혼 여대생에게만 나타난 중심의미이었다.

이렇게 볼 때 미혼 여대생이라서 분만에 대해서 막연하고, 신비스럽고, 자식에 대한 기대로 행복해 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벗어나 오히려 분만을 경험한 여성보다 분만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표현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혼의 여대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임신과 분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여성들이 분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분만을 생리적 기전으로 인식한 기존의 산전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가 종합된 미혼여성을 위한 임신과 분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고명숙 (1998). 간호학생의 분만관찰경험. 간호학회지, 27(4), 1-9.
- 김현경 (1994). 초산모의 출산경험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 허 영 (1986). 병원분만 임신부의 분만전 불안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16(2), 29-35.
- 송미송 (1992). 초산모의 질분만 경험.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안숙희, 박영숙 (1992). 임부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분만 경험지각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2(2), 131-141.
- 여정희 (1999A). 경산모의 분만통증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3), 277-286.
- 여정희 (1999B). 분만통증과 간호요구에 관한 인식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은순, 여정희 (1998). 분만통증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2), 203-216.
- 정은순 (1976). 임신부의 불안도 평가. 부산의대잡지, 16(2), 253-262.
- Areskog, B., Uddenberg, N., & Kjessler, B. (1983). Experience of delivery in women

- with and without antenatal fear of childbirth. Gynecol Obstet Invest, 16, 1-12.
- Burstein, I., Kinch, R., & Stern, L. (1974). Anxiety, pregnancy, labor, and the neonate. Am. J. Obstet. Gynecol., 118, 195-199
- Cartwright, A. (1977). Mother's experience of induction. Br. Med. J., 2, 745-749.
- Davenport-Slack, B., & Boylan, C. H. (1974). Psychological correlates of childbirth pain. Psychosomatic Medicine, 36(3), 215-223.
- Doering, S. R., & Entwisle, D. R. (1975). Preparation during pregnancy and ability to cope with labor and delivery. Am. J. Orthopsychiat., 45(5), 825-837.
- Field, P. A. (1974). Relief of pain in labor. Canadian Nurse, 70(12), 17-23.
- Field, P. A. (1987). Maternity nurses: How parents are us. Int. J. Nur. Stud., 24, 191-199.
- Giorgi, A. (1970). Psychology as a human science. New York : Harper & Row.
- Gorsuch, R. L., & Key, M. K. (1974). Abnormalities of pregnancy as a function of anxiety and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6(4), 352-361.
- Green, J. M., Coupland, V. A., & Kitzinger, J. V. (1990). Expectations,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outcomes of childbirth : A prospective study of 825 women. Birth, 17(1), 15-24.
- Laufer, A. B. (1990). Breast feeding: Toward resolution of the unsatisfying birth experience. J. of Nurse Midwifery, 35(1), 42-45.
- Luehrman, E. W. (1977). Toward a theology of suffering. Bulletin American Protestant Hospital Association, 41, 18-19.
- Mackey, M. (1995). Women's evaluation of their childbirth performance. Matern Child Nurs J, 23(2), 57-72.
- Marut, J. S., & Mercer, R. T. (1979). Comparison of primiparas' Perceptions of vaginal and Cesarean births. Nursing Research, 28(5), 260-265.
- Melzack, R. (1984). the Myth of painless childbirth. Pain, 19, 321-337.
- Nettelbladt, A., P., Fagerstrom, C. F., & Uddenberg, N. (1976). The Significance of reported childbirth pain. J. Psychosomatic Research, 20, 215-221.
- Pritchard, J., & Macdonald, P. C. (1980). Obstetrics(16th ed.). New York : Appleton Century Croft.
- Slade, P., MacPherson, S. A., Hume, A., & Maresh, M. (1993). Expectations, experiences and satisfaction with labour. Br. J. Cli. Psychol., 32, 469-483.
- Simkin, P. (1991). Just another day in a women's life? Women's long-term perceptions of their first birth experience. Part I. Birth, 18, 203-210.
- Waldenstrom, U., Borg, I. M., Skold, M., & Wall, S. (1996). the Childbirth experience: a Study of 295 new mothers. Birth, 23(3), 144-153.
- Waldenstrom, U., & Nilsson, C. A. (1994). Experience of childbirth in birth center care. Acta. Obstet. Gynecol. Scand., 73, 547-554.

- Abstract -

Key concept : College women, Meaning of Labor and Delivery

A Nursing College Women's Meaning of Labor and Delivery : Phenomenological Method

Yeo, Jung Hee*

A women's meaning about labor and delivery may influence the process of childbirth and performance of the maternal role. Therefore, negative meaning about the birth experience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hildrea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labor and delivery for the strategies of nursing intervention in positive childbirth experience.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of 10 nursing college women on Jeju Island from October 2000 to January 2001.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investigator in the class room after school hours. Each interview lasted for about 30 minutes on average.

Subjects were interviewed one at a time.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the consent of the subject.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Giorgi'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s and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similarities of its contents.

The investigator read the data repeatedly to identify the themes and the main meanings.

Eight main meanings were identified as follows : 1)pain 2) shame and disgust 3)load 4)naturality 5)unreality 6)happiness 7)anxiety 8)maturity. Under these main meanings there were seventeen themes.

- I. Pain : ㉠ It's too painful ㉡ I don't want to deliver
- II. Shame and Disgust : ㉠ I am shameful ㉡ I am hateful
- III. Load : ㉠ I don't feel free ㉡ I have responsibility
- IV. Naturality : ㉠ It's in order to obtain a child ㉡ It's natural for women ㉢ It's a destiny of women
- V. Unreality : I don't feel real
- VI. Happiness : ㉠ I am glad ㉡ I am happy ㉢ It's miraculous
- VII. Anxiety : ㉠ I am anxious ㉡ I am worried
- VIII. Maturity : ㉠ I understand parents ㉡ I feel great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for positive childbirth experience.

* Department of Nursing, Medical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